

200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4. 2. 28

연구수행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권인숙

연구원      김엘리

김현영

노미선

이경환

이동옥

홍미리

## 요약 및 제언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군대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현안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문제이다. 특히 이 남성간 성폭력 문제의 경우 남성문화와 관련되어 신고율이 낮고 인식이 미비하여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신뢰할만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대에서는 2001년 사단장의 여성군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과 신고, 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2003년 7월 김모 일병의 자살 이후 이러한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7월 육, 해 공군을 합쳐서 국방부가 발표한 '2000년 이후 군내 성범죄 관련 실태 및 조사관련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총 32건(이중 남성간은 2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성희롱은 18건이고 성추행은 14건 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690,000명의 군인 중 성폭력 피해자는 0.00005 %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유형에서도 비교적 강도가 약한 성희롱이 발생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수치는 군대는 성폭력 발생이 사회와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낮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대는 성폭력이 없는 곳이라고 주장할 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군대 외부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지난 2000년 정대철 의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그 해 기준으로 이 전 3년 간 군인들의 성폭력, 성희롱 발생수가 666건이고 그와 함께 휴가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5%가 피해를 인정했다고 나타났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발생률은 9.1%에 달했다. 위 두 기관의 조사뿐만 아니라 2003년 7월에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져 나온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사건들은 군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군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빈도중심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문제의 진단과 대처, 법이나 정책변화를 유도할 만한 수준의 조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 외에 심층면접과

군관계자 면담 등 보충면접을 실시하였다.

## (2) 연구목적

### 1)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립

군대의 남성간 성폭력은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남성간 성폭력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성폭력을 결합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남성간 성폭력의 연구현황과 그 특수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피고, 이를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접목시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을 분석했다.

### 2)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와 성의식조사

성폭력의 발생빈도, 발생형태, 발생상황, 발생이유, 신고현황 등에 대해 설문지 방법과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집단 내의 공개성 여부와 성폭력 수용도 등을 살펴 군대내 성폭력 발생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보다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언어적 성희롱의 실태, 성교육 시행 내용과의 상관관계, 가해자 형성에서 피해경험이나 목격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성의식을 세분화하여 성역할 의식, 성애의식,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에 관한 의식과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의식조사를 병행하였다.

### 3)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대의 제도적 의식적인 성폭력 대처방안의 관점과 현황, 실효성 등을 진단하고, 군에서의 성폭력 신고절차, 피해자 보호, 성폭력 교육의 개선방향 등을 짚어보았다.

##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지 조사, 심층면접, 관계자 보충면접 등이다.

### 1) 문헌연구

남성간 성폭력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에 관계된 국내외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연구하여 연구의 방향과 개념을 정립하고, 조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본 설문조사는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의 예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역군인은 연구기간이 짧고 첫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군인의 대다수를 점하는 육군<sup>1)</sup>에 한정하였으며 부대방문 조사와 휴가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군부대 방문 조사에 응한 병사들은 총 294명이다. 휴가병은 서울역과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휴가를 나왔거나 부대로 귀환하기 위해 승차를 기다리는 휴가병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조사하여 총 111명을 조사하였다. 제대병의 경우 제대 후 3년 이내로(입대 년도 1997 이후) 한정하여 가능한 현재의 군대내 상황을 반영하려 했다. 제대병 조사 중 육군 제대병을 선별하여 총 266명의 설문결과를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sup>2)</sup>. 무응답과 신뢰도가 낮은 설문지, 소속부대가 육군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유효 참여자 수는 671명이다. 이 중 소속군대별로 나누면 육군전방부대 439명, 육군후방부대 232명이다. 설문에 응답한 현역병은 총 405명, 제대병은 266명이다.

### 3) 심층면접을 통한 실태조사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다면적인 문제를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이 행해졌다. 가해자의 심층면접은 국방부의 공식 협조를 얻어 2003년 12월 29일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총 8명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피해자의 경우는 총 3명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내용은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전허락을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서면언어로 옮겨졌다. 또한 피해자 면접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 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사례 중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 6명의 상담 사례를 포함하였다. 또한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폭력이 어떻게 보고되고 처리되는지를 알기 위해 법적 제도적 과정을 살피고, 지휘계통에 있는 관계자들은 어떤 인식을

1) 총병력 69만 명 중 육군은 56만 명이다(2000년 말 기준). 해군은 공군은 각각 6만 7000여 명, 공군 6만 3000여명 이다. 월간조선의 군대 종합 가이드 북 (2002년 발간)을 참조.

2) 설문지 조사는 휴가병과 제대병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었다. 부대 방문조사의 실시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일단 소속부대와 관계없이 휴가병에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서울역, 동서울 터미널에서 만난 휴가병중 4명을 제외한 111명이 육군소속이었다. 제대병은 복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육군이 아니어서 제외된 96명의 설문지중 해군이 11명, 공군이 28명, 상근병이 10명, 의경과 전경이 24명, 기타가 6명이었다. 그러나 부대방문조사가 육군 전후방부대에서 이루어진 후 대부분의 설문지가 육군에 속해있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육군만으로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결과분석에서 제외된 97명의 설문결과는 따로 분석하여 제안부분에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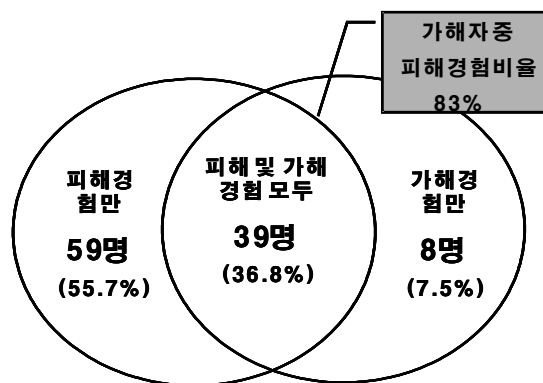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법무관 2명과 군의무관 1명, 설문조사시 방문한 부대의 사단장, 부사단장, 연대장, 인사참모 등을 만나보았다. 또한 군 성교육의 현재 진행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군 성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 4명도 만났다. 군 관계 단체로는 군사상자 유가족 연대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를 만나보았다.

### 3.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 (1) 발생을 및 빈도

본 조사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유효응답수는 671명으로, 이 중 직접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03명으로 전체의 15.4%였다. 직접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전체의 7.2%였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발생을 듣거나 본 경우는 166명으로 전체의 24.7%가 응답하였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병사의 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해 경험만 있는 병사는 64명으로 전체의 57.1%였으며,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병사는 39명으로 34.8%였다. 가해경험만 있는 병사는 9명으로 8%에 그쳤다. 전체 가해건수 중 피해를 입은 병사가 다시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가해자의 8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피해자 103명 중 에서 1회 이하인 경우가 9건(8.7%)이었으며 2회~4회가 42건(40.8%), 5~6회가 13건(12.6%), 수시로가 31건(30.1%)으로 전체 응답자 중 83.5%가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및 가해 현황 및 중복정도 N=106

(2) 발생형태 및 유형

발생장소는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표기하게 하였다. 총 응답수는 151건이었으며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 지목된 곳은 내무반에서가 88건(58.3%)으로 가장 높았다. 2순위는 화장실이 13건(8.6%), 샤워실이 15건(9.9%)로 나왔다. 발생장소의 특징으로는 샤워실, 내무반 등 반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도가 높으며, 행정사무실/초소/야외훈련장/연병장 등 업무수행장소에서도 21.4%의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상황에 대한 피해자 응답을 살펴보면 주로 휴식이나 게임시 58건(50%)에 취침할 때 35건(30.2%)의 강제적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 피해발생상황 (n=94)

피해발생상황	빈도(건)	백분율(%)	응답건수 별 백분율(%)
처벌이나 기합을 줄 때	2	1.7	2.1
취침할 때	35	30.2	37.2
샤워할 때	14	12.1	14.9
휴식이나 게임시	58	50.0	61.9
운동할 때	3	2.6	3.2
외박시	0	0.0	0.0
기타	4	3.4	4.3
총계	116	100.0	123.4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피해 유형을 물어본 결과 총 피해건수는 170건으로 나타났으며 포옹 70건(41.2%), 가슴 및 엉덩이 만지기 57건(33.5%), 성기만지기 22건(12.9%), 키스가 16건(9.4%),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이 2건(1.2%), 자위행위 강요 1건(0.6%),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가 2건(1.2%) 순으로 응답하였다. 목격자의 경우 총 373건의 피해 유형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기 만지기가 84건(22.5%)으로 피해자 응답의 2배에 달했으며, 성기삽입시도 또는 성기삽입은 총 19건(5.1%)으로 피해자 응답의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피해발생상황 [피해자] (N=103) [목격자] (N=161)

	피해자		목격자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키스	16	9.4	29	7.8
포옹	70	41.2	77	20.6
가슴,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	57	33.5	93	24.9
성기만지기	22	12.9	84	22.5
성기 삽입 시도 또는 성기 삽입	2	1.2	19	5.1
자위행위 강요	1	0.6	24	6.4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2	1.2	44	11.8
총계	170	100.0	373	100.0

\* 목격자 기타응답 3건(0.9%) 표에서 제외

주목할 점은 강제적 성적 접촉을 듣거나 본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답변에 비해 보다 강도 높은 답변이 나왔다는 점이다. 목격자 응답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심층면접과정에서도 직접 피해자, 직접 가해자 등은 성적 추행과 키스/포옹/성기만지기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을 잘 하는 반면 항문삽입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응답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 (3) 가해집단 및 피해집단의 계급적 특성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결과 피해자의 71.1%는 가해자로 선임병을 지목하였으며, 이외에도 부사관 7.0%, 장교 3.1%로 총 81.2%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응답했다.

면접인터뷰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 군법무관 속보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었다. 모든 피해자들은 선임병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목격하거나 보고 들은 사례 역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계급 [피해자] (N=98) [목격자] (N=162)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후임병	9	7.0	8	4.2
동기	15	11.7	6	3.1
선임병	91	71.1	156	81.7
부사관	9	7.0	9	4.7
장교	4	3.1	12	6.3
총계	128	100.0	191	100.0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은 피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격자의 시선은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 접촉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의 74.7%가 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응답은 15.4%였으며, 계급이 낮아서 지목되었다는 응답은 4.4%,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워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듣거나 본 경우에는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3%에 달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대답이 21.7%,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는 대답이 18.3%로 피해자의 인식과는 모든 응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해자의 72.9%는 “어떤 사람이 성적 접촉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응답해 가해자의 많은 수가 외모나 태도가 여성스러운 사람이 피해자로 지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계급적 신체적으로 취약하거나 남자답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가해자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스럽거나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군대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매사에 뒤쳐져서 6.3%/미움을 받아서 2.3% 등)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변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4)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성

피해자는 가해자가 강제적 성적 접촉을 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난삼아 54.2%, 애정 표현 29% 등으로 응답하여 가해자의 의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자가 괴롭히거나(8.4%), 마음대로 다루려고(4.7%) 혹은 군기를 잡으려고(0.9%) 하는 등의 가해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피해자는 14%에 그쳤다. 가해자 역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해 이유로 '장난삼아'가 42.9%,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가 39.3%로 나타났다. '괴롭히려고'와 '맘대로 다루려고'는 각각 5.4%, '군기를 잡으려고' 3.6%로 나타나 가해자는 후임병에 대한 선임병의 권력행사라기보다는 '장난'이나 '좋아하는 감정표현'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비해 목격자는 괴롭히기 위해서(20.1%), 마음대로 다루려고(11.9%)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한다고 보는 견해가 32%로 높게 나타났다.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대답은 26.2%를 차지했다.

폐쇄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성폭력 가해시에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는 정도는 성적 접촉의 강제성과 의도성을 보여줄 수 있다. 성폭력 피해가 다른 구타 등의 폭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처벌이나 기합과 같은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 당시 물리적 폭력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 총 22건(21.4%)이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다고 응답했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성은 발생장소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적인 장소에 일어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가해 당시 주변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응답은 가해자의 90.7%로 나타났다. 가해의 공개성에 대한 높은 비율은 키스나 포옹, 신체만지기, 성기만지기 등이 군대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또한 주변 사람들이 보고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71.8%로 가해자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부대 내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해행동을 보고있던 목격자들의 태도는 잘한다고 분위기를 만들거나(18.4%), 가담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5.3%) 등 가해 상황에 공모하는 비율이 23.7%로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2.6%) 비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담담하게 보고있었다(57.9%)'와 '못본 척 했다(10.5%)' 등 가해에 대한 소극적 동의를 합한다면 가해에 공모하는 비율은 91.6%에 이른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담담하게 보고 있었다는 응답이 59.5건(65.7%), 분위기를 조성했다 11건(14.9%), 못본척 했다 8.1건(9%)으로 가해자의 응답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5) 성폭력 발생 이후 과정 및 문제점

성폭력 발생 이후 신고 및 처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의 신고율은 87건 중에서 4건(4.4%)에 그쳤다. 이처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신고율은 극히 낮게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물어본 결과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48건(64.0%)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12건, 16.0%),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7건, 9.3%), ‘불이익이 두려워서’(6건, 8.0%)가 그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16건, 31.4%),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14건, 27.5%),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10건, 19.6%), ‘불이익이 두려워서’(4건, 7.8%)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목격자와 피해자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오래 있는 일’이라는 대답은 군대 내 성폭력이 일상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순위 응답 (1순위 N=75, 2순위 N=51)

	1순위		2순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12	16.0	10	19.6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48	64.0	14	27.5
불이익이 두려워서	6	8.0	4	7.8
가해자와의 관계때문에	7	9.3	16	31.4
기타	2	2.7	7	13.7
계	75	100.0	51	100.0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원수리함 등의 공식절차를 통하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혼자서 참고 견디는 것(52.2%), 가해자에게 항의(17.9%), 가해자보다 높은 선임에게 보고(1.5%)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대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도 22.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4. 성의식 실태조사 결과

##### (1) 성평등의식

성역할의식의 평균점수는 3.02점 (5점 기준으로 점수가 클수록 기존통념수용도가 높음)이고, 성애의식은 2.47점으로 사병들의 성애의식이 성역할의식보다 진보적 성향을 더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 20대 젊은 세대에게 나타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최근 20대의 성의식은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상호적 친밀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혼전성경험의 시작 연령도 빨라지고, 여성의 적극적인 성의 표현이 점점 용인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성개방에 따른 성적 표현과 경험의 증가는 다소 변화되었다고 하나,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성평등의식의 향상과 직접 연결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성애의 측면에서 사병들의 의식이 진보적 성향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개방이 남성중심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위험성은 항상 있기에 성역할의식과 함께 보아야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

## (2) 성폭력 통념 수용도

사병들은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높은 문항은 주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원인, 가해자의 특성, 사회구조적인 연관성에 관한 통념이고,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가 낮은 문항은 성폭력을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성폭력의 발생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통념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병들은 성폭력 문제를 남성의 성충동과 비정상적인 남성이 저지르는 문제로 바라보는 통념을 갖고 있는 편이며, 성폭력의 문제와 구조적 성차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인정하는 응답률이 높은 정도에 비하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정도를 보인다.

## (3)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

사병들의 57.4%가 군대 내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사병들의 60.6%가 성적 농담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군대생활의 활력을 위하여(64.7%), 습관적으로(25.5%)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런데 사병들의 35.4%가 성적언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34.6%가 부적절한 성적언동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여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군대 내 남성간의 성폭력이나 성적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나(59.5%, 2.50점), 사병들은 주로 ‘여성적인 남성’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남성간 성폭력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구도에서 인식하고 있다.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남성간 성폭력의 문제를 군대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남성간의 성적 접촉은 군대특성 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며’(77.5%, 1.98점), ‘성폭력 발생 시 계급에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는’(46.8%, 3.26점) 의견에 높은 동의를 보이는 점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이 조심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보통의 동의를(26.2%, 3.01점) 보임으로, 남성간 성폭력의 성격이나 원인에 관한 사병들의 인지수준은 고르지 못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세 번째 특징은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 사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 군생활에서 많은 사병들은 성적 행위를 허용하고, 남성문화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사병들은 강제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이라 할지라도 신체접촉에 거부감을 느끼고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나, 실제 군대 생활에서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친근감’, ‘장난’의 표현으로 이해하며 허용하고 있다. 둘째, 사병들은 남성간의 성적언동이 군대 생활의 활력소가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성적언동은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즉 남성문화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사병들은 성폭력이 일어날 때 계급과 상관없이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인 성폭력 발생 시에 가해자에게 직접 저항하는 경우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성폭력 발생 시 성폭력의 문제를 사소화하거나 으레적 남성문화로 해석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항들의 응답비율에서 서로 대립되는 답변에 비슷한 비율로게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사병들간의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계급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계급이 높은 상병과 병장이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과 제대병을 비교하면, 제대병이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으며, 군대 내 성폭력이 군대 내 계급의 위계성과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

#### (4) 성의식과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태도와의 상관관계

사병들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성애의식과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성의 측면에서 전통적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약할수록 그리고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 수용 정도가 낮을수록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높다. 또한 강한 남성성의 특성을 수용할수록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고,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낮다.

## 5. 현행 법·제도·의식 실태와 개선방안

### (1) 법·제도적 문제점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발생 이후 법적 사건처리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해결 과정은 법적, 제도적, 의식적 차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 한계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성폭력을 개인적 인권침해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사고’로 보는 관점이다.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은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강제적인 남성간 성행위와 동의에 의한 남성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거의 차별 없이 처벌하거나, 제도적으로는 사고발생이 단결력이나 사기저하를 낳는다는 조직보존 논리 속에서 사건 은폐나 축소보고등의 문제를 나을 수 있다. 교육의 내용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열거하는 것 외에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군기 문란으로 성폭력을 대하는 한계에서 나온다고 본다.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나 육군은 2001년 이후 지침을 통해 성폭력 대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조사에서는 이런 노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거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 신고처리절차에 대한 사병들의 이용도나 신뢰도도 아주 낮았고, 올바른 성의식형성에 별 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의 성교육등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단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성폭력 대처를 위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성교육도 열악한 조건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법·제도·의식상의 개선방안

첫째, 법적인 차원에서는 남성간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에 포함시키고 남성간 성폭력에서 강간을 인정해야 한다.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상의 친고죄규정은 군대 내 성폭력 처벌에서 강도 높은 성폭력을 벌하기 힘든 조건을 만든다. 형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군대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 군형법 상에서 합의에 의한 계간 처벌은 삭제해야 하고 남성간 성폭력과 동의에 의한 성행위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낮은 신고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장과 사건에 대한 헌병대 및 군검찰의 개입, 군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군의무관의 검진 체크리스트에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피해자의 성폭력 치료 및 심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며, 민간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해나가야 한다.

셋째, 의식적 차원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성문화 개선을 위해 군대 내 성교육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군대 내 성교육을 위해 예산을 할당하고 외부 전문가와 군대 내 성교육담당자가 군인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공동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점은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군인(공군, 해군, 의경, 전경, 해병대 단기사병 포함)의 성폭력 피해 가해율은 육군보다 높게 나왔다. 직접 피해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26명으로써 27.1 %였고,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명으로 유효응답자 95명 중 10.5%를 차지했다. 듣거나 본적이 있는 경우는 97명중 42명으로 43.3% 였다. 이 중 단기사병이나 의경에서의 피해, 가해, 듣거나 본 경험의 수치가 높게 나왔고, 공군(총 28명)도 피해율 21.4 %, 가해율 17.9%를 보이는 등 높게 나왔다. 표본수가 적어서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성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단지 육군에만 해당하는 일로 한정할 수 없으며, 모든 부대에서 발생하는 일로 판단하고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